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이 지각하는 결혼의 의미와 결혼생활의 변화*

임 춘 희¹⁾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들이 지각하는 결혼의 의미와 재결합 후 결혼생활의 변화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혼을 한 후 재결합한 여성 다섯 명을 면접하였으며 면접내용은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들은 결혼의 의미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시행착오적인 인연’, ‘측은지심과 믿음’, ‘부모로서의 존재 기반’, ‘사회적 인정에 필요하지만 대안이 없으면 머물러야 하는 관계’로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혼 후 재결합한 참여자들이 지각한 재결합 이후의 변화로는 크게 여섯 가지의 주제로 (1) 주장과 자기돌봄이 강해진 여성, 약해지고 배려가 많아진 남성, (2) 더 친밀해 지지는 않았으나 다시 껴 줄 수 있는 공허한 관계, (3) 되찾은 부모자녀간의 행복, (4) 이전 결혼생활의 항상성 유지, (5) 부부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노력, (6) 가족경계의 명료화로 범주화되었다. 즉,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들이 지각하는 결혼은 이혼 후 재결합은 배우자에 대한 측은지심과 믿음으로 이어지는 인연이며, 부모로서 존재감을 굳건히 해주며 더 나은 대안이 없는 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재결합 이후 여성의 입장에서는 결혼생활에서 자기주장이 강해졌으며 배우자에 대해 더 많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을 지각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와 함께 재결합 후 배우자 남성의 배려적 행동이 많아지고 부모자녀관계와 가족분위기가 좋아졌으며,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의 노력이 많아지고 가족의 경계가 명확해진 것을 변화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혼 후 재결합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이혼 후 대안적인 가족의 한 형태이자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 이혼 후 재결합, 결혼의 의미, 재결합 후 결혼생활의 변화

* 본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11-332-C00001).

2012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함.

1) 교신저자 :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E-mail : chlim@kunsan.ac.kr)

I. 서 론

오늘날 현대 사회의 개인들은 개인적 욕구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다양한 가치의 공존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결혼과 가족생활의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개인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관계상의 변화는 생애과정혁명(life course revolution)으로까지 말할 수 있다(Skolnick, 2009).

2011년 혼인과 이혼 통계에 의하면(통계청, 2012) 협의이혼은 75.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결혼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1.4%이었다. 그리고 이혼 평균연령은 남성이 45.4세, 여성이 41.5세로 전체 이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도 40세-44세였으며 이혼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3.2년이었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조이혼율이 2.3건(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으로 이혼율이 높으며 197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이혼 증가가 매우 급속한 속도가 이루어진 국가에 해당한다(www.oecd.org).

그런데 이처럼 이혼과 그에 따른 재혼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로는 사람들이 이혼 후 맺는 다양한 파트너십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상에는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며 그 가운데는 전배우자와의 재결합도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이혼 후 재결합한 결혼의 실제 비율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0)에 따르면 사실혼 가운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는 경우가 10.2%에 달한다. 이로 보아 사실혼 상태의 재결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관심부족은 이혼율이 높은 미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Binstock과 Thornton(2003)은 미국에서의 대부분의 연구도 결혼해소 후의 상황을 별거, 이혼 혹은 재혼 등의 범주로만 구분하고 이혼 후 많은 행로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Kitson과 Langlie(1984) 그리고 Wineberg와 McCathy(1993)에 의하면 이혼으로 끝난 결혼 가운데 30%에서 44%의 부부가 적어도 한번은 이혼 전에 별거와 재결합을 했었다고 한다. 더욱이 수차례의 재결합은 흔하며 재결합을 시도했던 여성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두 번 이상의 재결합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재혼률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이혼한 남녀들이 이혼했던 초혼이나 재혼 배우자와 동거를 통해 재결합(repartnership)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Sweeney, 2010).

재혼 여성에 대한 국내 연구(장현정, 2010)에서도 재혼 여성 가운데 일부는 이혼 후 자녀문제로 인해 전배우자와 재결합을 하였다가 다시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이혼 후 재혼하기 전까지 이혼자들에게 있어 재결합은 현실적으로 한번쯤 시도해보는 개연성이 많은 대안임을 시사한다. 공식적인 통계나 학술적인 연구에서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공간에서는

이혼자들을 중심으로 이혼 후 재결합을 고민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이혼자들은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해 고민을 드러내고 자조모임 같은 사이버커뮤니티를 형성할 정도로 이혼 후 재결합의 문제는 이혼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임춘희, 2012).

이혼 후 전배우자와 재결합하는 것은 재혼과는 특성이 다르다. 재결합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재혼과는 달리 부부가 이혼이라는 극한까지 치달았던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동일한 전배우자와 결혼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재결합과 재혼의 차이는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시선에 있어서 재혼의 경우 아직까지 재혼이나 재혼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문제지향적인 시각이 많다. 반면에 재결합의 경우는 헤어졌던 부부와 부모자녀가 합치는 것으로 특히 자녀를 위해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재혼에는 비현실적이고 낙관적인 기대와 선호가 있는 반면, 재결합의 경우 동일한 배우자와 다시 결혼생활을 시작하므로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가 재혼에 비해 보다 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혼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하여 재혼은 전배우자와의 갈등해결이 이혼으로 끝나는 반면, 재결합은 이혼 이후에 전배우자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의 측면에서 볼 때 재혼은 통계나 대중매체에서 재혼의 증가가 자주 언급되면서 부정적 시선이 약화되는 식으로 주목받는 반면, 재결합은 재혼

에 비해 관심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재혼을 부추기는 주위 사람들이나 결혼정보회사, 대중매체의 관심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결합하는 사람들은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재혼은 자녀보다는 재혼 당사자인 부모의 욕구와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혼과 재결합이 모두 각각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재혼은 다른 다소 복잡한 구성의 가족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유대와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그 속에서 가족원들이 안정성과 건강성을 찾을 수 있다. 가령 재혼가족의 청소년들 가운데는 새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들도 있다. 이들은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적게 가지며 재혼가족도 정상가족으로 보려는 믿음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임춘희, 2006). 한편 재결합은 부부와 자녀에게 이혼으로 일시적으로 손상되었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며, 정상가족으로의 복귀라는 인식과 위기극복 후 부부와 부모자녀관계를 견고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 함께 재혼과 재결합 모두 취약점이 있다. 재혼은 새부모 자녀관계를 비롯한 어려움으로 재이혼의 위험이 있으며, 재결합 또한 전혼에서의 갈등이 반복되고 당사자들의 변화와 노력이 없으면 다시 헤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현대와 같이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결혼생활의 기간도 길어지면서 결혼생활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결혼한 이후

에도, 별거, 이혼 그리고 재결합 혹은 재혼 그리고 재이혼 등의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 이혼통계(통계청, 2012)에 의하면 결혼 후 4년 이내 부부의 이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혼 초기 부부로서의 적응과 어린 자녀의 육아스트레스가 맞물려 갈등이 많아지는 시기에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 후 경제적, 심리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문제를 겪으면서 자신과 전혼생활에 대한 성찰이 많아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는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특히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전배우자들은 이혼은 했지만 자녀문제를 비롯한 이혼 후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한번쯤은 이전 배우자와의 재결합을 고려해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혼 후 재결합은 재혼과는 달리 이혼 후의 다양한 선택의 하나로 주목받지 못했으며 연구의 주제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혼을 힘들었던 결혼생활의 종결로 간주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적 욕구와 그로 인해 이혼 후 과정을 독신 아니면 재혼이라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독립적이고 비연속적인 인생사건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혼한 사람들의 이혼 후 인생행로는 개인마다 연령별, 성별, 학력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양하며 전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양한 상황과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런데 이혼부부의 재결합은 재결합 당사자 자신의 인식이나 사회적 시선에 있어서 환영받는 일이라기

보다는 숨기고 싶거나 다소 창피스러운 일로 간주될 소지가 많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대부분 많은 부부간에 갈등을 겪다가 적대적인 관계로 끝나는데 그러한 경험을 한 이혼당사자들이 다시금 재결합을 주변에 알려야 하는 것에 대해 다소의 심리적 부담과 창피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서로를 비난했던 부부의 이혼과정을 목격했던 주변의 사람들은 이혼한 부부의 재결합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선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결합을 말할 때 흔히 사용되는 ‘깨진 그릇 이 맞추기’라는 속담은 한번 파탄난 부부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우며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의미로 재결합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에 일조한다.

재결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속에는 재결합 후 다시 헤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미국의 경우 재혼 이상의 결혼은 초혼보다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에서 1985년과 1994년 사이에 재혼한 사람의 40%가 10년 안에 별거나 이혼으로 끝났으며 초혼인 경우는 3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Bumpass & Raley, 2007). 재결합한 부부도 과거에 여러 가지 갈등 끝에 이혼을 선택하였고 다시 부부로서 생활하게 되었더라도 재이혼의 위험은 있다. 가령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과 배우자가 각자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과거에 갈등을 빚었던 상호작용 패턴을 반복하는 등 과거 결혼생활의 잔재나 후유증을 청산하지 못했을 때는 재결합은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며 회복하기 어

려운 관계로 다시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상에서 재결합을 고민하는 이혼자들에 대해 재결합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사이버공동체의 성원들의 경우 반대 이유로 이혼한 전배우자에 대한 용서가 어려운 점, 전배우자의 무반성과 신뢰부족, 재결합에 대한 진정성 결여, 자녀로 인한 성급한 재결합 결정으로 인한 후유증, 이전의 갈등문제 미해결로 인한 재이혼의 우려, 전배우자의 단점 불변에 대한 생각 등을 들었다(임춘희, 2012). 이는 이혼경험자나 일반인이 갖는 재결합에 대한 우려를 잘 보여준다.

재혼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장현정, 2010)에서도 재혼 전에 전배우자와 자녀문제로 재결합을 하였으나 과거의 갈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헤어지는 과정을 겪고 나서 재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재이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부부의 재결합은 재혼에 비해 몇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먼저, 이혼한 후 재결합한 당사자들은 이혼 경험으로 인해 학습하고 성장하게 된 바탕에서 전배우자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며 결혼생활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수 있다. 그리고 재결합은 재혼에 비해 장점이 있다. 즉,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익숙하므로 재혼하게 될 때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재혼생활에 대한 불안과 재혼가족으로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재결합하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혼 후의 충격 특히 따로 사는 친부모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충성심의 갈등과 불안에서 벗어나 친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재결합부부의 부모나 형제 등 인척들의 입장에서도 재결합한 부부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다.

결혼생활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했거나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된 사람들은 재결합을 통해 성급했거나 감정적으로 결정했던 이혼에 대해 성찰하고, 이혼 후의 생활에서 터득한 자신과 전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결혼생활에 대한 통찰로 결혼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재결합한 부부들이 이전의 시행착오적인 결혼생활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함으로써 건강한 부부와 가족으로 재출발한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공적인 재결합은 이혼으로 인해 손상된 가족원 개인의 심리적 기능과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족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즉, 이혼 후 재결합을 통해 부부간의 친밀성과 유대감이 회복되고 부부역할과 부모역할이 충실해지며 가족이 과거 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재성장할 수 있는 제 2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요컨대 이혼 후 재결합을 통해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부부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부부와 자녀의 심리적 안정성과 가족의 건강성이 더 견고해지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 후 재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 가족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선행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해 재결합한 사람들은 결혼의 의

미를 어떻게 구성하며 재결합한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혼 후 재결합한 사람들의 경험에 기초한 사실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하고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재결합이란 한번 헤어진 부부가 떨어졌다가 다시 결합한다는 의미로 이혼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복역 혹은 분단 등의 상황으로 부부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합치게 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재결합이란 ‘법적으로 이혼한 부부가 얼마 후 다시 만나 혼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적인 부부로 결혼생활을 다시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 결혼은 법률혼과 실제혼 즉 혼인신고를 다시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즉, 부부가 법적인 이혼 후 다시 만나 혼인신고를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를 재결합으로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이 지각한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이 인식한 재결합 후 가족생활에서의 변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통해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이 지각한 결혼의 의미와 재결합 후 변화한 가족역동의 실재를 파악해보고자 하며, 나아가 이혼 후 재결합이 갖는 가족강점 혹은 가족건강성에 대해 학문적,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 다섯 명을 면접하였으며 이들의 면접 내용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선정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로는 참여자를 찾기가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 후 재결합한 사람들은 이혼 당시에 이혼과 관련된 복잡하고 불편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시금 과거의 당사자끼리 재결합한다는 것에 대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보며 비웃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자신들의 재결합 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혼 후 재결합한 참여자들을 찾기가 어려울뿐더러 재결합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결합 경험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질적 연구의 목적은 특정 현상에 대한 기술과 해석, 통찰과 발견에 있으므로(Padgett, 2001), 본 연구에서는 연구와 관련하여 깊이 있고 풍부한 개인적 경험을 기꺼이 제공하려는 용의를 가진 이혼 후 재결합 한 여성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연구자 주변 사람들의 관계망을 통해 이혼 후 재결합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 협조를 청하였다. 재결합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해 연구에 협조해줄 수 있는지 동의를 구한 후 연락처를 받아 연구자가 연락

을 하여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다. 흔히 재결합은 자녀 때문에 혹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합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다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혼으로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자녀가 있으면서 이혼하고 재결합한 경우,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서 재결합한 경우, 경제적 수준, 재결합 이후의 법적 신고 여부를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 두 가지 원리로 적절성과 충분성이 있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10). 적절성은 연구에서 이론적인 필수조건에 따라서 연구에 대해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어 선택하는 것이고, 충분성이란 연구 현상들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자료를 포화 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주제에 대한 ‘적절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선정하였다. 첫째,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에서 재결합한 경우로 재결합의 경우는 법적 신고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모두를 포함시켰다. 둘째, 이혼 당시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셋째, 경제적 수준과 학력수준이 다양한 참여자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자료의 ‘충분성’을 위해서 참여자와의 면접에서 더 이상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수집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별로 진행된 면접 횟수는 평균 2회 이상이며 1회 면접시간은 두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의 개인적, 가족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참여자 1은 50세의 대졸 여성으로 고3과 중3인 아들 둘을 두었으며 30세에 결혼하여 18년간의 결혼생활을 하였다. 그 후 남편(개인사업)의 일회성 외도로 참여자 여성 측에서 이혼을 제기하여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후 2년 만에 재결합을 하게 되었으며 재결합 한 지는 2년 되었다. 이혼 후 일을 하기 시작하여 현재 자영업업을 하고 있다. 재결합의 결정적 이유는 남편의 재결합 제의와 남편의 급격한 건강 악화로 재결합을 받아들였는데 자녀가 셋인 것도 재결합을 수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 이혼 당시 나갔던 남편이 참여자 1의 집에 들어오면서 재결합 생활을 시작하였다. 법적으로는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참여자 2는 현재 55세의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으로 비정규직의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으며 남편과는 25년의 결혼생활 끝에 2년 전에 재판이혼을 하여 이혼하였다. 이혼사유로는 남편의 여자문제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으나 결정적으로 참여자가 이혼소송을 하여 재판이혼을 하였다. 남편과의 사이에는 딸(27세, 대졸), 딸(25세, 대학생), 아들(20세, 대학생)의 세 자녀가 있다. 참여자가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이혼상태이나 실제적으로는 가계의 주요 수입원인 건물을 공동관리한다. 부모역할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하고 있으나 남편은 건물내 숙소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집에서 각각 따로 기거하며 왕래한다. 자녀들도 수시로 부모를 함께 보면서 지내고 있고 집안 행사 때는 부부가 동행하는 등 실제적으로는 재결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호적에는 참여자인 엄마가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별 (나이)	결혼기간	자녀수	이혼 후 재결합 까지의 기간	재결합 생활 기간	이혼 제기자 및 이혼의 유형	재결합 후 혼인신고 여부	이혼 사유	재결합 사유	이혼 후 재결합까지의 거주상황	현재 직업/ 교육 수준/ 남편 직업
1	여성 (50세)	30세 결혼 18년간의 결혼생활	고 3, 중 3 아들	2년	2년	여성이 먼저 이혼제기 (협의이혼)	법적 결혼	남편 외도	자녀생각/ 남편의 재결합요구/ 남편의 건강 (혈압으로 응급실입원)	이혼하고도 한 집에서 동거하다가 남편이 거주를 달리했다가 다시 부인 집으로 들어옴	사무직/ 대졸/ 자영업
2	여성 (55세)	25년간 결혼생활 끝에 2년 전 재판이혼	딸(27세, 25세) 아들(20세)	2년	2년	남편이 먼저 이혼제기, 여성이 이혼소송 (재판이혼)	법적 이혼상태 (실제혼)	남편 외도	자녀생각/ 가족의 사업체 공동운영	남편은 부부가 운영하는 건물에서 부인은 집에서 각자 거주	문화해설사/ 대학원졸/ 숙박업
3	여성 (50세)	결혼 10년 만에 이혼 후 1년 만에 재결합 재결합한지 8년 됨	재결합 후 남은 자녀 6세 딸 1명 (백혈병)	1년	8년	여성이 먼저 이혼제기 (협의이혼)	법적 결혼	성격 차이, 찾김 이혼	다른 이성교제 하였으나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	각자 거주하다 남편 집으로 들어옴	주부/ 대졸/ 공무원
4	여성 (51세)	동거도함 13년의 결혼생활 이혼 후 2년 만에 재결합	임양 딸(중 3), 남편의 재혼부인에서 남은 아들(초 1) 모두 친자녀가 아님	이혼 후 각자 재혼 2년 후 재결합	4년	남편이 먼저 이혼제기 (협의이혼)	이혼상태 (실제혼)	남편 외도	남편이 재혼부인의 외도로 이혼	이혼 후 원하의 남자와 동거하다가 전남편 집으로 들어옴	주부/ 고졸/ 전설 기술직
5	여성 (46세)	결혼생활 6년 만에 이혼, 이혼 후 1년 만에 재결합	중 2, 초 4 아들 두 명	1년 후	9년	여성이 이혼제기 (협의이혼)	법적 결혼	남편 폭력	남편의 재결합 요구(폭력반성과 각서) /자녀 생각	친정집에서 살다가 남편 집으로 옴	주부/ 고졸/ 교사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보호자의 자격은 없다. 남편이 정식으로 법적으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의하지는 않았으나 만약에 제의해온다면 법적으로 결혼신고를 다시 하겠다고 한다.

참여자 3은 현재 49세의 대졸여성으로 30대 초에 결혼하여 결혼한 지 10년 만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부부 성격차이와 싸움으로 남편(공무원)과 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 1년 만에 재결합하였으며 재결합 후 자녀를 출산하였고 재결합한 지는 7년이 되었다. 재결합은 남편이 먼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재결합 이후 남편이 변한 부분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변한 것을 더 많이 언급하였으며 법적으로는 다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다. 남편만 일을 하고 참여자 3은 전업주부로 백혈병을 앓고 있는 6세 된 딸을 돌보고 있다. 남편은 생활비를 전적으로 참여자에게 맡기고 참여자가 이를 관리하며 생활한다.

참여자 4는 현재 52세의 고졸여성으로 남편(전기기술자)의 외도로 결혼 전 4년과 혼인신고 후 9년 총 13년의 결혼생활 후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남편과의 사이에는 친자녀는 없고 입양하여 키운 딸(11세)이 있었다. 이혼 후 남편은 재혼하여 재혼부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참여자 4는 이혼 후 4세 연하의 남자와 동거를 하였다. 이후 재혼한 전남편의 부인이 외도로 가출을 하면서 전남편이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참여자 4가 동거하던 남성의 집에서 나와 전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되었다. 재결합을 한 지는 5년째이며 현재 입양한 딸(17세)과 남편의 재혼부인이 낳은 아들(9세)을 키우고 있으며 혼인신고는 다시 하지 않았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참여자 4가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있기 때문에 학비나 다른 면에서 실리적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에도 동거하다가 결혼신고를 하고 살아봐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결합의 가장 큰 이유는 오랫동안 살았던 전남편에 대한 미련, 정 때문이었다고 한다.

참여자 5는 46세의 고졸 전업주부이며 남편은 48세의 교사로 현재 중2(15세) 초5(12세)인 아들 둘이 있다. 결혼생활 16년째. 결혼생활 6년 만에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한 후 1년 만에 재결합하여 현재 재결합한지는 10년째이다. 주위의 소개로 6개월 교제하고 배우자를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교사이라는 점과 부모님의 압력으로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이 술을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버릇이 있었다. 참여자 5가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회복되지 않아 누워있는데 발길질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혼 후 자녀는 남편에게 두고 친정에서 생활하였으며 시부모와 남편이 재결합을 요청하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재결합을 하자고 하여 아이들 때문에 재결합을 하게 되었다.

2.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면접내용은 질적인 연구방법의 하나인 Giorgi(2009)의 연구절차를 따랐다. 그의 현상학적 방법의 절차는 크게 전체의 인식, '의미단위'의 구별, 일상표현을 심리학적 언어로 변

형하기,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기와 같은 네 가지의 분석단계로 이루어진다(Giorgi, 2004). Giorgi(2009)에 의하면 ‘의미단위’는 기술된 자료를 읽는 가운데 의미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부분으로 즉, 단어나 문장이 단위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연구자의 태도에 의해 경험적으로 결정하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면접 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의미상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의 문장을 의미단위로 하였다. 즉, 이혼 후 재결합한 다섯 명의 참여자들을 면접 조사한 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전체를 인식하고 의미단위를 구분한 후 의미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며 통합적으로 서술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이 지각하는 결혼의 의미

이혼 후 재결합한 다섯 명의 참여자가 지각한 결혼의 의미는 Giorgi(2009)의 방식을 따라 각 참여자들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 말한 내용 중 의미있는 단어가 있는 문장으로 의미단위를 확인하고 다시 의미단위를 통합하는 보다 큰 주제로 범주화하는 순서를 거쳤다. 그 결과 총 12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하위구성요소를 다시 통합한 4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할 수 있었으며 이는 표 2와 같다. 12개의 하위 구성요소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행, 불행의 과정이 공존하는 인생사건, ② 인연

혹은 실수, ③ 위기를 겪어서 호전되는 관계, ④ 배우자에 대한 측은지심, ⑤ 의지의 상대, ⑥ 신뢰가 바탕인 관계, ⑦ 자녀가 우선순위인 결혼생활, ⑧ 배우자보다 중요한 부모로서의 존재감, ⑨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⑩ 하나의 결혼, 분리된 생활, ⑪ 과거를 용서하지도 않고 행복한 것만도 아닌 결혼, ⑫ 만족할 순 없어도 다른 대안이 없다면 머물러야 하는 관계이다. 이것을 다시 대주제로 범주화할 때 결혼의 의미는 ‘시행착오적인 인연’, ‘측은지심과 믿음’, ‘부모로서의 존재 기반’, ‘사회적 인정을 위해 대안이 없으면 머물러야 하는 공허한 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 재결합한 여성들이 지각하는 이러한 결혼의 의미는 일반적인 초혼이나 이혼, 혹은 재혼, 무자녀가족에서의 여성 등 다양한 결혼 유형의 여성들이 지각하는 결혼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혼과정을 겪고 다시 동일한 전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시작한 재결합한 사람들은 결혼의 의미를 ‘시행착오적인 인연’으로 결혼-이혼-재결합의 과정을 겪은 자체가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결국은 인연인 것으로 귀결짓고 있었다. 또한 재결합한 사람들은 결혼의 의미를 ‘측은지심과 믿음’으로 지각하였는데 이는 결혼생활의 부침(浮沈)과 부부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측은지심의 마음 믿음 혹은 정(情)이라는 용어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배우자에 대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는 비록 재결합을 하였다고 해도 이혼과정에서 부부간 애정의 상

표 2. 이혼 후 재결합 여성이 지각하는 결혼의 의미에 대한 구성요소

주제(구성요소)	의미의 통합	의미단위
시행착오적인 인연	행, 불행의 과정이 공존하는 인생사건	모든 사람이 인생의 굴곡이 있듯이 우리의 결혼도 굴곡이 있었다고 생각해요.(참여자 1)
		제 결혼요? 파란만장한 거겠죠. 살긴 해도 아직도 끝이 없고.(참여자 5)
	인연 혹은 실수	인연이라면 인연이죠.(참여자 2)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다시 또 살고 보니 결혼은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고 인연이기가 하겠지만.(참여자 4)
	위기를 겪어서 호전되는 관계	이혼했다 재결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부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과정을 겪어야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고.(참여자 1)
		결혼해서 한번은 이혼소송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결혼도 이혼위기 같은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봐요.(참여자 2)
측은지심과 믿음	배우자에 대한 측은지심	부부로 사는 이유는 젊었을 때 예쁜 그 모습을 기억해서 내마누라 늙어도 예쁜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측은지심도 들고 나이가 어렸을 때 같으면 간단히 생각했을 텐데 나이가 들면서 부부라는 것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남편에 대해 좀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1)
		애들도 다 떠나면 측은지심으로 남편하고 잘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을 보듬고 사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참여자 2)
		시간이 갈수록 상침여자대방에 대해 편안해지는 거 그런 게 결혼인 거 같아요.(참여자 3)
	의지의 상태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참여자 4)
		처음에 살 때나 이혼할 때는 감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무덤덤하게 의지하며 사는 거죠. 싸움도 없지만 그렇다고 재미도 없는... 결혼생활이 다 그렇지 않나요.(참여자 4)
		결혼해서 잘 지낸다는 것이 그냥 서로를 편하게 해주면 된다 생각해요.(참여자 5)
부모로서의 존재 기반	자녀가 우선순위인 결혼 생활	둘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요. 최소한 양심껏 아이들 생활을 지켜주려는 마음이. 저나 남편도 서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믿거니 하고 이 상태가 유지된 거죠.(참여자 2)
		남편이 절 믿어요.(참여자 5)
		내가 속이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걸 이 사람이 믿죠.(참여자 4)
	배우자보다 중요한 부모로서의 존재감	애들이 인생이고 내 삶이고 그런데 애들은 결혼했으니까 나왔지 어디서 나왔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있으니까 남편도 중요한거고.(참여자 2)
		결혼을 지키려고 한 것도 애들 때문이었고 사실 애들이 제 가 결혼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참여자 1)
		애들이 없으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의미가 글세 없다고 하겠죠.(참여자 5)
사회적 인정을 위해 대안이 없으면 머물러야 하는 공허한 관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결혼은 운명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사회적으로 실패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참여자 3)
		혼자서 살면 일단 남이 깔보고 들어가니까 못나든 잘나든 남편이 있어야 하겠더라고요.(참여자 4)
		결혼은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애들 때문도 남편 때문도 아니고.(참여자 5)
	하나의 결혼, 분리된 생활	다시 합쳐 살지만 따로 국밥 같아요.(참여자 4)
		같이 살아도 한 지붕 아래 남남이죠.(참여자 5)
		결혼해서 행복한 것 아니니까 싫어하는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참여자 5)
	과거를 용서하지도 않고 행복하기만 한 것도 아닌 결혼	이렇게 다시 산다고 해서 남편의 과거를 모두 용서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냥 옛날 일을 끄집어내고 싶지 않으니까.(참여자 1)
		그렇게 좋아서 또 만나 사는 건 아니예요.(참여자 4)
		나이 들어서 이 나이에 다시 또 새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거고.(참여자 5)
만족할 수 없어도 다른 대안이 없다면 머물러야 하는 관계	만족할 수 없어도 다른 대안이 없다면 머물러야 하는 관계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이.(참여자 2)
		이 사람한테 백 프로 만족은 아니지만 이혼해도 다른 사람 만나 봐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 사람하고 합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죠. 만족해서는 아니예요.(참여자 3)

실과 분열과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미움의 감정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복잡한 정서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결혼에 대해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자기노력의 표현으로 ‘측은지심’이나 ‘정’ 혹은 ‘믿음’과 같은 용어로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애둘러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결합한 여성들의 경우 결혼의 의미를 부모로서 존재하는 기반으로 즉 부모로서의 정체감 확인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서의 정체감 확인은 흔히 일반적인 결혼의 의미의 하나로 언급된다. 그러나 특히 재결합 부부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서 이혼 전 결혼생활에서부터 부부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와 자녀의 성장에 좀 더 초점과 의미를 두었으며 재결합과정과 이후의 생활에서도 부부보다는 자녀와의 관계, 부모역할을 중요한 결혼의 의미로 지각하고 있었다.

재혼과는 달리 재결합의 경우 부모 자신보다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인 여성들의 경우도 다섯 명 가운데 이혼 당시 자신의 친자녀가 없던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결합 이유로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밝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들은 결혼의 의미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대안이 없으면 머물러야 하는 공허한 관계’로 지각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 갖는 의미는 결혼당사자들이 성인으로 또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는 것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재결합한 여성의 경우 이혼을 통해 이혼여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배우자가 없으므로 해서 사회적 낙인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즉,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결혼이 사회적 인정을 받는데 필요한 강력한 힘을 가진 제도라는 것을 체험한 재결합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 결혼의 틀을 깬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혼의 경험으로 인해 현재의 결혼이 불만스러워도 더 나은 대안이 없는 한 또 다시 이혼하기는 어렵다고 체념하면서 공허한 관계지만 결혼의 틀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분리된 생활방식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결혼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의 결혼이 ‘선택’ 개념 속에서 이야기된다 해도, 여전히 결혼은 법과 제도, 관습과 규범 등과 관련된 사회제도의 하나이며(장필화, 1999) 사회적 인정을 받는데 강력한 배경이 된다. 재결합을 통해 전배우자와의 결혼의 틀로 다시 들어간 여성은 승인된 사회제도로 재진입하기 위한 시도과정에서 결혼에 만족하지 않아도 결혼과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인정을 받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러한 식의 결혼의 의미를 더 많이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결혼의 의미를 결혼 성격의 변화와 연관지어볼 때 Amato(2004)는 역사적으로 결혼의 성격이 제도적 결혼에서 우애적 결혼으로 다시 개인주의적 결혼으로 변해왔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재결합한 여성의 경우 여성의 시각에서 결혼, 이혼, 재결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혼과 같은 개인적 선택을 하였으나 재결합을 통해 여전히 가족과 결혼의 틀을 중시한다는 점에

서 제도적 결혼의 의미가 강하면서 배우자와의 애증관계를 겪으면서 배우자에게 동료애적인 측은지심을 강하게 느끼는 우애적 결혼의 중간 형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참여자들의 연령이 중년기에 해당하는 여성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혼 후 재결합을 거치면서 결혼에 대한 의미는 초혼일 때 중시했던 배우자와의 순수한 애정적 정서적 결합의 의미보다는 미운 정 고운 정이 뒤섞여서 나오는 측은지심이나 부모역할을 위한 토대, 사회적 인정을 위해 필요한 조건 등 지극히 현실적인 성격의 결혼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중년기에 결혼을 유지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점에서는 중년기에 결혼을 유지한 상태라는 것 자체가 은연중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회적 표현일 수 있다.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들의 경험상 이혼한 여성의 삶은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통감하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만족하지 않더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현실적인 이득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결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결합을 거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연이라는 결혼의 의미는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었다는 점에서 다소 운명적인 인연으로서의 결혼의 의미가 강하다. 또한 이혼을 통해 다시금 결혼의 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제도적 결혼을 수용해야 하는 체념적 성격의 결혼의 의미도 있다. 특히 자녀로 인해 재결합을 고려한 경우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로서 강조되는 결혼의 의미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재결합한 여성이 부여하는 결혼의 의미로 주목할 만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측은지심과 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명의 참여자 모두 우연히도 남편에 대한 ‘측은지심’ 혹은 ‘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이혼 후 여성인 본인들 못지않게 이혼 남성이 된 남편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또한 남편이 재결합을 먼저 제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배우자에 대한 수용심과 용서를 나타낸 표현으로 재결합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결혼의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의 의미는 성인 남녀가 부부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종의 제도로서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서 갖는 결혼의 의미와는 별개로 오늘날 다원화된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결혼과 가족을 선택하며 자신이 선택하고 체험하는 결혼 혹은 가족에 대해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는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와 생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며 그러한 의미 추구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의미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확인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무자녀 부부의 경우 자녀부재인 결혼 생활을 외부인이 예상하는 것과 같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으로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결혼생활의 의미를 우애적 부부,

정서적 지지, 가치관 공유, 자유로움과 여유, 부정적 경험의 인정에 두고 있었다(이수연, 공미혜, 2012). 일본여성 결혼이주자들의 경우 한국결혼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한국가족만의 독특한 정 이해하기, 일본여성에서 한국엄마 되기, 말 안하면 모르는 한국남편에게 다 말하기, 한국 며느리됨의 포기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다(이지선, 천혜정, 2008). 이처럼 무자녀 부부나 다문화가족이나 이밖에 다양한 가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선택한 결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나타난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의 경우 결혼의 의미로 ‘시행착오적인 인연’, ‘측은지심과 믿음’으로 나타난 것은 같은 배우자와 결국 결혼생활을 할 운명이었으면서 도중에 이혼과 같은 실패적 경험을 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이혼을 겪으면서 남편의 모습에 대해 좀 더 감정이입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결혼의 의미를 ‘부모로서의 존재기반’으로 본 것은 일반적인 결혼의 의미로 부모됨과 부모역할이 포함되지만 이 또한 이혼하면서 약화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들이 지각한 결혼의 의미 가운데 ‘사회적 인정에 필요하지만 대안이 없으면 머물러야 하는 공허한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혼했던 여성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인정 수단으로서 결혼이 갖는 제도적인 힘을 절감하면서 재결합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더 나은 대안이 없으면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어린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재결합한 여성이 지각하는 이러한 결혼의

의미는 오늘날 결혼이 정서적 만족이나 낭만적인 사랑, 그리고 ‘표현적 개인주의의 윤리’(Bellah, Marsden, Sullivan, Swidler & Tipton, 1985)에 기초하기 보다는 비록 결혼이 주는 정서적 만족이 낮더라도 결혼은 대가보다는 보상이 많은 관계이며 사회적으로 상징적 중요성이 큰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이 지각하는 결혼생활의 변화

이혼 후 재결합한 다섯 명의 여성이 지각한 재결합이후의 결혼생활의 변화는 면접 자료에서 추출한 51개의 의미단위를 18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분류한 후 다시 이를 토대로 총 6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하였다. 18개의 하위구성요소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강해진 모성 ② 남편의 기죽음과 배려행동 증가 ③ 여성의 자기영역 확보 ④ 자기돌봄을 통한 스트레스 대처 ⑤ 여성의 자기표현, 자기주장의 증가 ⑥ 부부친밀감의 회복 혹은 단절 ⑦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용서의 미해결 ⑧ 간절하지는 않은 법적 재결합 기대 ⑨ 외형상 부부, 내면은 공허한 남남 ⑩ 더 가까워진 것은 아닌 그러나 다시 깨기도 힘든 결혼 ⑪ 행복한 자녀 ⑫ 자녀로 인해 만들어지는 스위트 홈 ⑬ 가계관리 행동양식의 유지 ⑭ 배우자 성격 불변에 대한 인식 ⑮ 본인의 변화노력 ⑯ 갈등대처방법의 터득 ⑰ 양가와 거리두기 ⑱ 우리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등이었다.

이것을 다시 6개의 대주제로 범주화한 결과 ‘주장과 자기돌봄이 강해진 여성, 약해지고 배

표 3.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이 지각하는 결혼생활의 변화

대주제 (구성요소)	소주제 (하위구성요소)	의미의 통합	의미단위
주장과 자기 돌봄이 강해진 여성, 약해지고 배려가 많아진 남편	강해진 모성	이혼 후 강해진 모성	엄마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용감하고 씩씩해졌어요(1)*
		강해지기 위한 노력	남보다도 특별히 아픈 아이를 키우다보니 많이 강해졌어요. 일부러라도 같은 처지의 엄마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해요(3)
		배짱이 생김	애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죠. 애들도 크니까 배짱도 생기고(2)
	남편의 기죽음과 배려행동증가	남편의 눈치 보기	남편이 미안해하고 늦는다고 전화도 하고 달리 눈치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나를 더 챙기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남편이 좀 변했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설령 진심이 20%라고 해도 그런 말 자체가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요즘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먹고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다 내가 챙겨줘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1)
		성질 죽임	남편이 전보다 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전에는 한번 성질나면 물불을 못 가렸는데(2)
		비난행동 감소	남편은 아이가 생기고 나서 변했어요. 예전에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책임전가를 했는데 이제는 보호해주는 역할도 취하고 말도 하고 나에게 대하는 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보다 많이 저를 위해주고 제 말을 들어주고 아내입장에서 백프로 만족은 하지 않지만 전보다 좋아졌어요(3)
		간섭행동의 감소	남편이 그전처럼 나를 타짜하는 것 간섭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없어졌어요. 남편이 전보다는 많이 저주는 편이죠(4)
		작은 배려의 시작	남편이 달라진 건 딱히 없는데 최근 들어 약간 달라진 것은 전보다 많이 내 생각을 해준다고 해야 하나 귀가하기 전에 미리 전화하는 것(5)
	여성의 자기영역 확보	취업으로 인한 활력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었어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고 애들만 쫓아다니면서 너무 매달려서 집착하지 않게 되고(1)
		외향적 성격으로의 변화	직장생활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남편한테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오픈을 하는 게 편해요(1)
		수입과 부부 갈등 도파	제 일을 하는 것이 저나 남편에게 도움이 되죠. 남편하고 같이 모델 사업 일을 하면 싸우게 되니까 사실 제 일로는 큰 수입은 안돼요. 제 용돈벌이에 가깝죠. 그래도 자격을 갖추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일이 있어서 행복해요. 내가 내 일하면서 건물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고 남편을 카운트를 보고 관리해주는 것이 사실 저나 남편에게 좋은 거죠(2)
			일을 하는 것이 물론 돈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나는 나대로 하는 일이 있어야 남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합치고 나서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고(5)

자기 돌봄을 통한 스트레스 대처	자기 돌봄	운동하고 명상하고 도움이 되요. 나를 스스로 격려하고 누구야 너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았다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그러면 진정되고 편안해지고 나에 대한 중심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재결합하고 나서 제 자신을 편하게 바라봐요. 남편에 대해서도 신경 안 쓰고 본인의 프라이드는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1)
	잊거나 참기	용서할 것도 없고 과거 남편이 했던 것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새겨두지 않아서 마음이 편해요. 예전 일은 잊고 지금도 속상한 일이 있으며 참는 거죠. 삭히고 지나간다고나 할까(4)
	잘해주면서 냉랭하게 이중적으로 대하기	남들한테 남편이 그런대요. 바가지도 굵지 않고 자기를 편하게 해준다고 그거 사실은 남편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 쪽에 신경 안 쓰고 사니까 조금은 남편한테 이중적이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나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생활하기 편하니까. 나 자신만 생각하면 정신건강엔 좋아요(5)
여성의 자기표현/ 자기주장의 증가	더는 참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자기주장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요즘은 남편이 자기를 너무 쥐 잡듯 한다고 해요. 전엔 조용히 있었는데 속에선 불이 끓는데 참았지만 지금은 바로 납득하지 못하면 참기보다 얘기해요(1) 그전처럼 남편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진 않아요. 전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편해졌죠(4)
	세게 나가서 간섭받지 않기	지금은 내가 세게 나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 갔다 늦게 오면 어디 갔다 오냐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내가 더 세게 차갑게 나가면 나한테 뭐라 하지 못하는 그런 게 그래서 그전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좀 세게 나가고 내 마음대로 간섭 안 받고 그러니까 좋죠(2)
더 친밀해 지지는 않았으나 다시 켤 수는 없는 공허한 관계	부부간의 성적인 친밀함의 회복	부부사이에 그런 부분이 안 맞으면 다시 또 헤어질 생각을 했을 거 같아요. 처음엔 저도 과거 일들이 떠오르고 해서 힘들었는데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을 바꿨죠. 어차피 다시 사는데 이견 아무 것도 아닌 테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1)
	부부 친밀감의 회복 혹은 단절	부부생활은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잘 안하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4)
	몸과 함께 마음도 멀어짐	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부관계를 안 해요. 그제 남편에게는 스트레스지요(3)
		부부생활은 거의 안 해요. 그 사람이 술 먹으면 내 옆에 오죠. 그게 더 싫어요. 제가 워낙 싫어라 하고 뭐라 하니까 이 사람도 그런 건 기대 안하고 그냥 살아요(5)
	남편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분노	남편에 대한 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인정을 안해서가 아니라 편안히 생각해도 욕하고 올라오는 게 해결이 안 되는데 남편 붙들고 옛날 꺼 끄집어내고 싶진 않아요. 예전의 상처를 얘기하다보면 남편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이놈이... 이런 생각이 든다는데 저는 그러면 스스로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스스로 잊어버려요. 가끔 성질나면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저 꼴을 보려고 했나 싶죠(1)
	용서가 안 됨	지금도 과거에 남편이 나한테 폭력을 썼던 것은 지금도 용서가 안돼요.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요. 미친놈이지(5)

간절하지는 않으나 법적 재결합 기대	내심으로 법률혼의 기대	신랑이 간절히 원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혼을 취소하 고 법적으로 다시 혼인신고하자고 매달린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혼해서도 살면서 실제 가족처럼 살아도 법적으로 다시 재결 합을 해줄 수 있는데 매달리지를 않아요(2)	
	법적인 재결합의 이득 없음	다시 혼인신고를 한다면 아무래도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 도 더 하게 되고 잘해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혼인신고하고 살았어도 바람나서 깨지고 그런 걸 한 번 겪어보니 까 법으로 혼인신고하고 안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4)	
외형상 부부, 내면은 공허한 남남	겉모습은 부부, 실제는 남남	겉으로는 다른 부부와 똑같이 모임에도 가고 하지만 실제로 둘 만이 함께 재밌게 지낸다거나 그런 시간은 거의 없어요. 아주 사무적인 일, 수입관리하고 애들 문제 의논하는 거 그런 현실적인 일만 처리하는 파 트너로 사는 거죠. 지금 남편은 단순히 남편으로서의 존재보다 아이아 빠로서의 존재감이 크고 저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2)	
	따로국밥	남편 그냥 한 집에 사는 남이라고 생각해요. 따로 국밥이죠(4)	
	언젠가 따로 살기를 원함	겉으로는 멀쩡히 사는 것 같아도 이혼해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애들이 크고 결혼하면 남편과 따로 살고 싶어 요(5)	
더 가까워진 것은 아니지만 다시 깨기도 힘든 결혼	상황과 나이상 재이혼이 힘듦	남들이 보면 이혼하고 또 그렇게 각자 다른 사람하고 살다가 이렇게 합치니까 엄청 좋아해서 한 줄 아는데 꼭 그렇게 좋아서 다시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또 전보다 더 각별해진 것도 아니고 어찌하다 보니 상황이 그렇고 이제는 나이도 있으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나이에 결혼을 깰 수도 없고 그래봤자 뽀족한 수도 없고(4)	
	이혼 후유증의 경험	한번 그렇게 난리를 치며 이혼해봤는데 이렇게 살다가 또 그럴 순 없 을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남편도 겪어봤으니까 남편이 더 그렇죠. 이혼 하고 나서 병까지 나고 나름 후유증을 겪었으니까(1)	
	이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번 이혼했었는데 절대로 다시 또 헤어지진 못하죠. 우리 사회에서 이혼한 사람 특히 이혼한 여자를 좋게 보지도 않고 만만하게 보니까 결혼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도 결혼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요(3)	
	결혼을 후회하지만 결혼의 틀은 깰 수 없음	그렇게 이혼하는 것도 복잡한 걸 아니까 애들도 있고 다시 또 하진 못 하지요. 남편도 자기 체면도 있으니까 절대 이혼은 또 다시 안하죠. 하 지만 살면서 점점 더 포기하게 되고 결혼한 거 자체를 후회하죠. 지금 도. 남편하고는 마음적으로 가깝다는 생각,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은 요 만큼도 없어요. 그래도 결혼생활은 최하지만 내 혼자서 나 즐기고 사 는 건 최고예요(5)	
되찾은 부모자녀 간의 행복	행복한 자녀	아이들이 되찾은 기쁨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들이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아빠가 필요했어 요. 엄마는 섬세하고 자주 얘기하고 그래도 큼직한 건 잘 못해주는데 그러다가 합치니까 남편도 애들에 대해 더 애뜻해하고 그동안 제대로 책임을 못했다고 느껴서 그런지 애들한테 잘해요 애들이 이제는 저 말 고 오히려 아빠하고 더 상의도 하고 가족이 좋아졌어요(1)

자녀로 인해 만들어지는 스위트 홈	자녀의 안정		딸아이가 아빠랑 너무나 살고 싶어 했는데 다시 합치고 나니까 딸도 남편도 만족해하고 딸이 아빠를 잘 챙겨요. 남편도 신경 쓰고... 내가 낳은 딸은 아니어도 갓난 아이 때부터 키워서 그런 생각은 없어요. 나한테는 남편보다는 딸이 우선이에요. 딸이 아빠를 좋아라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좋은 점이에요. 애도 편안해졌고(4)
		행복감	다른 사람한테는 지금 이 자체가 행복하고 좋은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걸로 얘기해요. 과거엔 이 사람하고 이혼까지 했어도 지금은 다시 가족으로 사는 거니까 실제로 집 분위기도 더 좋아졌고 그러니까요(1)
		부모로서의 만족	딸아이는 재결합하고 나서 생긴 거죠. 그런데 남편은 아이가 생기고 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남들처럼 아빠가 되었다는 것에 뿌듯해하고 아이가 있으니까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고 아빠로서 잘하니까 결혼생활이 다 만족스럽진 않아도 그냥 지내는 거죠(3)
	남한테 자연스럽게 보여 지는 가족의 모습		남들처럼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혼해서 혼자 지낼 때보다는 가족하고 산다는 것이 남한테 이야기하기도 몇몇하고 남한테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편하고 좋아요. 딸애도 아빠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니까 분위기메이커죠(3)
			딸이 아빠를 좋아라 하고 잘 지내니까 아무래도 가족분위기가 좀 부드럽죠. 싸울 일이 있어도 딸이 나서서 중간역할도 해주고(4)
		결혼을 유지시키고 집안 분위기를 좋게 하는 아이들	결혼을 이어주는데 애들이 완전히 100% 역할을 하죠 둘째 딸이 큰 역할을 해요. 막내아들도 아빠를 좋아라하고 아빠 아빠 하니까 애들한테는 이렇게 다시 합쳐 사는 게 좋은 거죠. 애들 아빠도 애들이라면 꿈쩍 못하는 사람이니까(2)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		남편하고는 별부여도 둘째 아들아이가 딸처럼 굴고 애교가 많아요. 지아빠한테도 달라붙으니까 그 바람에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는 게 있어요(5)
			그전부터 하던 돈 관리는 제가 했어요. 남편은 벌어들이고 제가 관리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남편이나 나나 의견일치를 본 거니까 (3)
			남편은 원래 저한테 맡겼고 지금도 다시 제가 생활비는 다 관리해요. 그리고 남편은 항상 그래요. 생활비는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그런 합의는 그대로 인거죠 (1)
이전 결혼 생활의 항상성 유지	가게관리 행동양식의 유지		돈 문제는 나를 믿으니까 합치고 나서 다시 나한테 맡기더라고요(4)
			그 전부터 가게 관리는 다 남편이 하고 생활비 쓸 카드만 나한테 줬어요. 지금도 그렇고(5)
		전과 동일한 가게관리	원래 수입 지출 관리는 내가 했어요. 남편이 원래 계산이 흐리니까 그런 부분이 약해요. 카운터는 잘 봐도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고 세금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건 그대로예요(2)
	배우자 성격불변에 대한 인식	변치 않는 성격차이	재결합해서 살아도 성격차이도 그대로고 크게 변한 게 없어요(3)
		자기 성격으로 되돌아감	합친 지 얼마 안 되어서 처음에는 잘해주었어요. 좀 지나니까 도로 똑같아 지더라고요. 자기주장이 전보다는 적어졌지만 성격이 어디가나요(4)

부부 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노력	본인의 변화 노력	기대하지 않음, 신뢰감 저하	변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요즘 미리 전화라도 하는 것 그거 한 가지 외엔 성격이 그렇잖아요. 나도 폭력만 안 쓰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 렇게 까지 기대하진 않았어요. 앞으로도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 사 람은 오히려 재결합하고 합치면서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살 면 살수록 남편이 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신뢰감이 없어졌어요(5)
		자신을 편하게 대함	재결합하고 나서 제 자신을 편하게 바라봐요. 남편에 대해서도 신경 안 쓰고 본인의 프라이드는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고 죽는 건 아무도 모르는데 웬수네 하면서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한테도 잘해주시 시작한 거예요(1)
		배우자에 대한 배려행동 시작	요즘은 남편에게 제가 고마워, 수고했어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이 남편이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내가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서 그 까짓것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 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많이 변했어요. 남편이 어차피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하자(3)
		상대이해, 편안하게 해줌	그전에는 남편이니가 남자로서 위엄도 있고 자존심도 세워주려고 했 지만 지금은 그냥 편한 상대랄까 상대를 많이 이해하려고 해요. 자 기도 맘대로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예전처럼 사사건건 맞서지 않 고 그냥 지 마음 편하게 해주고 막 잔소리하고 그러지 않아요(5)
	갈등대처 방법의 터득	갈등의 회피	나름대로 남편에 대해 요령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 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피하면 된다는 그런 것이 생겨서 저러다 말겠지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편해진거죠(4)
		상호 생활 간섭	너는 너 나는 나 그 사람이 늦게 와도 걱정안하고 나한테도 나 늦게 오는 거 터치하지 말라고 하고...이제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전에는 이 사람이 뭐라 하면 맞서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싸우고 그랬는 데 이제는 내버려둬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로는 살갑고 친절한 멘트 를 보내요. 그러면 좋아하죠. 그렇다고 진짜로 이 사람을 좋아해서 봐주는 건 절대 아니예요. 그래야 술 먹고 일찍 오고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것 뿐이에요(5)
		무대응	가능하면 부딪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야 안 싸우니까. 남편이 뭐라 해도 그전처럼 하지 않고 조용히 얘기하거나 대꾸를 안 해요. 그러 면 자기도 제 풀에 그러다 말더라고요(2)
가족 경계의 명료화	양가와 거리두기	남편이 본가와 거리두기	이혼하고 나서 신랑도 자기네 식구들하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러 다 보니까 이제는 시댁 식구들하고는 거의 교류도 안하고 신랑도 내 식구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2)
		처가에 거리 두는 남편	친정 부모님이 재결합한 걸 제일 좋아하시고 안심하시죠. 원래도 그 랬지만 그렇다고 남편한테 처가에 오라는 말씀도 안하세요. 남편이 처가에 오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하니까. 저도 친정 갈 때는 이 사 람하고 안가고 애들하고 저만 다녀요. 합치고 나니까 처가에 더 가 기 싫어라 하는 것 같아서(5)

	양가 일로 너는 요구하지도 다투지 않음	서로 시댁이니 친정일로 신경 쓰고 다투고 간섭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시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고 시어머니는 이제 아프니까 별 말씀 안하시니까 예전보다는 편해졌죠. 남편도 이제는 때 되면 시댁에 꼭 가야한다고 전처럼 고집하지 않아요. 나도 친정에 같이 가자는 얘기도 안하고... 이 사람도 그 전처럼 그렇게 시골집 일이라면 의무처럼 강요하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시부모님들도 별 말씀도 없으시고 이제는 우리 부부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나도 다시 합치고 나서는 친정을 잘 안가요. 시댁식구들하고는 다시 합치고 나서 서먹서먹하고 부담스럽고 만나기도 싫어졌어요(4)
우리 가정 우선으로 생각함	가족일은 가족 안에서 해결한다는 생각	시댁에서는 우리가 이혼했다가 합친 걸 몰라요. 알리지 않았거든요. 친정에서도 언니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끼리 일을 양쪽 집에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지금도 모르게 한 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일을 남들이나 부모님이 알아봤자 해결해주는 것도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지만 우리 가족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 같아요(1)
	터치 받지 않고 우리 가족으로 살기	좋은 점은 예전에는 시누이들이랑 간섭을 많이 하고 남편이 좀 끌려다니는 식이었는데 합치고 나서는 그런 터치 하는 게 없어졌어요. 남편도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끼리 우리식대로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3)

* 숫자는 표 1에서 제시한 참여자 사례번호임.

려가 많아진 남성’, ‘더 친밀해지지는 않았으나 다시 깰 수는 없는 공허한 관계’, ‘되찾은 부모자녀간의 행복’, ‘이전 결혼생활의 항상성 유지’, ‘부부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노력’, ‘가족경계의 명료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가운데 ‘주장과 자기돌봄이 강해진 여성, 약해지고 배려가 많아진 남성’이라는 인식은 곧 이혼 후 재결합 가족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이유로는 여성이 이혼과 이혼 후 경험을 통해 독립심이 커지고 이전에 남편에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족가치관에서 탈피하는 심리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재결합의 제안을 남편이 먼저 하였고 때문에 보다 유리한 입장

의 아내는 좀 더 자기주장적이 되었으며 남편은 양보하고 아내의 요구를 전보다 더 수용하는 입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결합한 여성들이 자기주장이 강해졌다고 해도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다시 결혼을 깰 수는 없다는 체념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배우자와의 갈등을 요령 있게 대처하거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에서 변화가 있었다.

연구결과에서 이혼 전에 비해 재결합 이후 참여자들이 부부의 양쪽 부모 가족과 거리를 두어 가족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면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이혼 후 재결합한 가족의 경우 가족의 경계가 부부 원가족으로부터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이혼 후 재결합의 경험은 부부 당사자 뿐 만아니라 부부를 둘러싼 부부의 원가족들에게도 가족경계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결합 부부 당사자나 부모나 형제들이 이전 결혼생활에서 확대가족적 관념으로 간섭하고 지나치게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면 재결합 당사자들의 원가족은 이혼 후의 후유증과 재결합 이후 재이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재결합 부부가 부부중심의 가족으로 지낼 수 있도록 거리를 두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들이 지각한 긍정적인 변화는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의 분위기가 매우 호전된 것이었다. 이는 사이버공동체 참여자들에 대한 연구(임춘희, 2012)에서도 이혼 후 재결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지하는 이유로 자녀를 위해서 재혼보다 재결합이 좋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녀중심의 가치관이 강한 한국 사람들의 경우 이혼 후 재결합의 좋은 점으로 자녀에게 좋은 결과를 미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이혼 후 재결합 후에도 변하지 않고 지각하는 것도 있었는데 가계관리행동이나 성격차이 같은 문제는 다시 이혼 전 가족에서와 같은 항상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모든 가족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족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최규련, 2008)는 점을 고려할 때 재결합의 경우는 가족 항상성의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이버공동체 참여자들도 전배우자의 단점이 불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임춘희, 2012),

이혼 후 재결합은 여러 가지 이혼 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 변화를 원치 않는 가족 항상성의 힘이 지속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역할이나 가계관리 행동과 같이 개별적인 가족의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상호 묵인 하에 유지되어온 행동의 경우 재결합했다고 해서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이 지각하는 결혼의 의미와 재결합 후 결혼생활의 변화를 살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이 지각하는 결혼의 의미에 대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결혼의 의미를 ‘시행착오적인 인연’이면서 ‘측은지심과 정’ ‘부모로서의 존재 기반’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하지만 대안이 없으면 머물러야만 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재결합한 여성들은 결혼을 단순히 순수한 애정을 가진 두 사람의 결합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동일한 배우자와의 결혼, 이혼 그리고 재결합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운명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측은지심이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애정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혼의 경험을 통해 결혼제도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과 이혼자에 대한 불리한 사회적 시선을 체험하면서, 결혼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이혼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소극적으로라도 결혼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결합한 여성들이 인식하는 결혼은 결국 ‘시행착오를 겪으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관계’의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이 지각하는 이러한 결혼의 의미는 결혼의 일반적인 의미와 유사하면서도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결혼의 의미보다는 부부로서의 재결합이 다소 운명론적이면서도 체념적인 경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 갖는 의미는 남녀 두 사람의 애정에 기초한 정서적, 경제적, 성적, 법적인 결합이자 부모됨으로 인해 가족을 이루게 되는 출발점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결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에 대한 남녀의 젠더 차이와 개인적 관점과 체험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결혼이 갖는 의미 또한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무자녀 부부가 지각하는 결혼의 의미에 관한 연구(이수연, 공미혜, 2012)에 의하면 무자녀 부부는 결혼의 의미를 ‘우애적 부부’, ‘정서적 지지에 의한 결혼생활’, ‘가치관 공유’, ‘자유로움과 여유’, ‘부정적 경험의 인정’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혼한 여성이 재혼관계속에서 구성해가는 결혼의 의미는(장현정, 2010) ‘남성에 대한 의존’, ‘삶의 정상성 회복’ ‘관계 속에서의 자립/자율’, ‘부부중심의 평등한 동반자’, ‘규범적 속박에서 자유로운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대 중반을 전후한 재혼에서 결혼은 새롭게 가족을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의미화되는 반면, 40대 중반을 전후한 재혼에서 결혼은 노후의 남은 생애를 함께 할 동반자관계로 의미화되었다.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이 지각하는 이혼 후 재결합의 변화는 크게 여섯 가지의 범주의 주제로 ‘주장과 자기돌봄이 강해진 여성, 약해지고 배려가 많아진 남성’, ‘더 친밀해지지는 않았으나 다시 깰 수는 없는 공허한 관계’, ‘되찾은 부모자녀간의 행복’, ‘이전 결혼생활의 항상성 유지’, ‘부부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노력’, ‘가족경계의 명료화’로 나타났다. 즉,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들은 스스로 자기주장과 자기돌봄이 많아진 반면 남성들은 과거 결혼생활에서 보다 발언권이 약해지고 아내를 보다 배려하는 행동이 많아진 경향으로 변화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재결합을 했다고 해서 더 친밀해지지는 않았으며 부부관계에서 다소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여기서 이혼 후 재결합 이후에 여성이 보다 강해지는 모습으로 변화를 지각하는 것은 재혼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재혼관련 연구에서도 재혼가정에서 의사결정은 부부간에 평등하게 이루어진다고거나 재혼여성이 더 많은 권력을 갖는다는 보고(Ganong & Coleman, 1994)가 있다. 그러한 원인으로서는 남성이 의견불일치가 일어날 때 권력을 양보한다거나 여성들이 의사결정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Hobart, 1991).

그러나 재결합은 이러한 재혼에서의 양상과는 다른 상황적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연구참여자들의 재결합 동기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참여자들 모두 배우자 남성에게서 재결합 제의를 받았으며 이혼사유 또한 성격차이 때문이었던 참여자 1명(참여자 3)를 제외하고는 남편의 외

도, 폭력 등 남편의 과오로 인한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재결합 후 여성이 보다 권한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 그리고 재결합 사유로 볼 때 이혼 전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거나(참여자 3), 자녀가 있었어도 부부 사이의 친자녀가 없었던 경우(참여자 4)를 제외하면 모두 자녀가 두 명 이상 있었으며 여성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애정보다는 자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재결합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재결합 후 만족스러운 변화로 부모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지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재결합이기에 부부로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균열을 경험한 입장에서 만족감보다는 공허함을 느끼기 쉬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40~50대 부부는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에 대한 양육과 부양의 부담을 갖는 샌드위치 세대로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이르는 이혼 후 재결합한 여성들 또한 부부가 특별히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결혼생활에 공허감을 느끼기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참여자들이 재결합 이후의 변화로 ‘부부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흔히 재혼이나 삼혼을 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초혼자들에 비해 높으며(Bumpass & Raley, 2007) 부부 갈등 시 이혼을 갈등해결의 쉬운 방법으로 택하기 쉽다는 것과는 재결합 부부의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혼의 경험이 재결합한 여성은 여성자신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배우

자의 폭력이나 외도의 재발 같은 심각한 부부 갈등이 없다면 다시 재이혼을 택하기 보다는 결혼과 가족의 틀을 유지하는 선택을 한다. 한번 이혼한 여성의 입장에서 재결합 후 재이혼 결정은 첫 이혼 때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재결합이 40대에 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혼하지 않은 일반적인 중년기 부부들도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시기이므로 재결합을 결정한 여성들 또한 재결합으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리라는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시 이혼이라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위한 긍정적인 최선택으로 부부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혼 후 재결합한 사람들이 지각하는 재결합 후의 변화는 결국 ‘강해진 여성과 배려가 많아진 남성’, ‘행복한 부모자녀’, ‘긍정적인 부부 관계 변화를 위한 노력’, ‘가족경제의 명료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같이 이혼 후 남편이 먼저 재결합을 제의하여 수용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그리고 재결합 후 이혼 당시의 이혼사유였던 외도나 폭력행위가 없어진 경우의 재결합한 여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같은 상황이라 해도 재결합한 남성의 입장이나 혹은 연구참여자와 크게 다른 상황으로 재결합한 사람들의 경우 지각하는 결혼의 의미와 재결합 이후의 변화는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혼 후 재결합은 이제까지 가족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혼한 사람들이 한번쯤은 고려해보게 되는 선택

의 하나이다. 또한 아직까지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지가 많은 한국사회의 특성상 통계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실제로 법률혼이나 실제혼의 형태로 이혼한 사람들이 재결합을 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춰진 가족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개인이 결혼하고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결혼의 의미가 초혼에서와 같이 규범적인 의미와는 다르며 가족생활에서도 일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도 있으나 많은 변화를 겪는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결합 가족은 외형상 초혼과 같은 형태로 보여진다하더라도 일련의 가족형태와 관계상의 변화를 겪은 내부자의 관점에서 지각하는 결혼의 의미와 가족생활의 변화는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초혼 가족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연구에서 흔히 초혼가족 위주의 결혼의 의미에 대한 이상적이고 당위론적인 언급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서 나타나는 결혼의 의미와 재결합한 가족 구성원이 지각하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다시 외형상 초혼가족인 재결합 가족과 이혼상태에서 실제로 재결합상태인 가족의 경우 당사자들이 지각하는 결혼의 의미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재결합 가족 부부가 지각하는 결혼의 의미에 대한 추후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 재결합은 재결합한 여성의 입장에서 배우자에 대한 측은지심과 믿음으로 이어지는 인연이며 부모로서 존재감을 굳건히 해주며 더 나은 대안이 없는 한 사회

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지해야 하는 관계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비록 재결합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내적으로 만족스럽진 못해도 결혼에 대한 안정성은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결합 후의 변화로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배우자에 대해 더 많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균열을 경험하지만, 배우자 남성의 배려적 행동이 많아지고 부모자녀관계와 가족분위기가 좋아지며 긍정적인 부부 관계로 바꾸기 위한 부부의 노력이 많아지고 가족의 경계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이혼 후 재결합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이혼 후 대안적인 가족의 한 형태이자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결혼과 가족형태에 대한 개인적 선택이 다양해지고 개인의 일생에서 결혼과 가족의 경로가 복잡해진다고 예상될 때 이혼 후 재결합의 양상도 내용상 분류에서 복잡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법적인 이혼이 아니더라도 별거를 했다가 재결합하는 경우 혹은 법적으로 이혼한 후 법적으로 재결합은 하지 않고 동거의 형태로 즉, 실제혼으로 재결합을 하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다양한 재결합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재결합 가족이 갖는 나름대로의 가족강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추후로 이혼 혹은 별거 후 재결합한 가족에 대해 가족탄력성이나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혼 후 재결합을 한 남성들의 시각을 포함한 연구도 진행된다면 재결합에 대한 남녀의 경험과 관점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10).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수연, 공미혜 (2012). 무자녀 부부의 결혼생활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 23-44.
- 이지선, 천혜정 (2008). 한국남성과 연애 결혼한 일본여성의 한국결혼생활적응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57-76.
- 임춘희 (2006).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에 대한 연구: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재혼가족신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3), 79-102.
- 임춘희 (2012).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한 인터넷 사이버공동체 참여자들의 인식. *한국콘텐츠학회*, 12(10), 237-253.
- 장필화 (1999). 결혼제도와 성. *한국여성학*, 13(2), 41-76.
- 장현정 (2010). 여성의 재혼경험을 통해 본 결혼의 의미의 구성과정: 전남지역 중소도시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청구논문.
- 최규련 (2008). 가족상담 및 치료. 공동체.
- 통계청 (2012).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2012.4. 19.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0). 사실혼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 Amato, P. (2004). Institutional, companionate, and individualistic marriage-A Social perspective on marriage change. In H. Elizabeth Peters & C. M. Kamp Dush(Eds.), *Marriage and family* (pp.76-90).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llah, R., Marsden, R., Sullivan, W. M., Swidler, A., & Tipton, S. M. (1985).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instock, G., & Thornton, A. (2003). Separations, reconciliations, and living apart in cohabiting and marital un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432-443.
- Bumpass, L., & Raley, K. (2007). Measuring separation and divorce. In S. L. Hofferth & L. M. Casper(Eds.), *Handbook of measurement issues in family research* (pp.125-143). Mahwah, NJ: Erlbaum.
- Ganong, L., & Coleman, M. (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s*. Sage Publications.
-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공역. 현문사. (원본발간일, 1985)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psychology-A modified Husserian approach*. Duquesne University Press.
- Hobart, C. (1991). Conflict in remarriag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5, 69-86.
- Kitson, G. C., & Langlie, J. K. (1984). Couples who file for divorce but change their mind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 469-489.
- Padgett, D. (2001).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Sage Publications.
- Skolinick, A. (2009). The life course revolution. In A. S. Skolinick & J. H. Skolinick(Eds.), *Family in transition* (15th ed.)(pp.31-40). Boston:

- Allyn & Bacon Pub.
 Sweeney, M. M. (2010). Remarriage and stepfamilies: Strategic sites for family scholarship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667-684.
- Wineberg, H., & McCarthy, J. (1993). Separation and reconciliation in American marriag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5, 75-86.
<http://www.oecd.org>

1 차원고접수 : 2013. 1. 2.

수정원고접수 : 2013. 2. 18.

최종게재결정 : 2013. 3. 4.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ir Marriage and Changes in Marital Life as Perceived by Reunited Women after Divorce

Lim, Choon Hee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ir marriage and changes in marital life as perceived by reunited women after reuniting following divorc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5 women reunited after divorce were interviewed and the data thus collected was analyzed by means of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aning of marriage as perceived by the participants could be categorized as follows: 'trial and error- fate', 'pitiful attachment', 'reason for being parents', and 'a relation necessary for social approval but being tied together with decreased levels of intimacy'. The changes in marital life after reuniting as perceived by reunited women were classified by the following 6 themes: 'stronger woman and weaker man', 'not to be closer but never breakable marital relationship', 'regained happiness in parent-children relationships', 'homeostasis in marital life pattern', 'an effort for developing a more positive couple relationship', 'clarification of family bound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reuniting could be a positive alternative choice after divorce in many ways, though it might not be a fully satisfying marriage from the perspective of reunited women.

Key words : the meaning of marriage, changes in marital life after reuniting, reunited women after divorce